현실은 극복대신 교체가 답이다

(사무엘상 10:1~16)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현실은 극복대신 교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현실은 극복대신 교체가 답이다'

우리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를 데려왔을 때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결혼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 결혼한 당사자들도 결혼을 현실로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결혼은 현실이고 연애는 낭만적인 한 편의 드라마이고 소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현실(現實)'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가 형성된 의미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결혼

이 현실'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연애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 감정으로는 현실적인 결혼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애 감정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연애도 현실입니다. 연애도 현실이고 결혼도 현실인데 현실이 교체된 것입니다. '현실이 교체된다.'는 말은 현실과 연관된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 극복의 의지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극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현실을 인정하라, 현실을 수용하라'는 말도 하는데 현실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뜻할 때가 대부분으로 '현실을 극복한다.'고 하면, 주어져 있는 물리적 상황이나 환경적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싶을 만큼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상황을 부족하게 해석하고 이해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돈 없는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없는 환경이 현실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자의 자형의 의미를 따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자면 그 사람의 현실은 돈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에 돈 없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속적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고, 현실이 현실 되는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닿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살전5:16~18절의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적 조건은 아무런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쉬지 말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 모든 물리적 상황을 하나님을 현실로 해석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에는 남자 친구가 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는데도 그 현실이 바뀌지 않고 애를 낳고 기를 때에도 남편을 계속해서 현실로 유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경우는 남편이 귀중하므로 아이들이 귀중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빛에 가려서 보이질 않게 되는데 이때에 '결혼도 연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로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연애 때의 낭만적이고 황홀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인데 현실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건강, 형통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물리적 상황을 현실로 느껴왔고, 믿음은

이 현실과 별개의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현실감이 있고 여기에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교인으로서의 삶을 덧붙이듯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믿음은 이미 현실감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현실감 속에서 하나님은 버려지거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옥을 갈 때에 빛이 나듯이 내 마음에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대해서 왕처럼 1등하는 존재가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한자로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성서적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주 성서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한자의 자형대로 생각했던 현실의 의미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행7:2~4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이것이 바로 나타날 현(現)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가장 빛나는 존재로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 옥구슬을 갈 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실로 바뀌게 되니 그 동안 중요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면서 이 신탁에 따르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울에게서 현실을 바꾸는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버려졌던 상태에서 함께 하시는 상태로 바뀌는 것, 즉 현실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현실감으로 살던 사울이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현실감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을 ‘새 사람, 새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인격이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서 붙는 대상이 바뀌므로 현실이 교체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 본문의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징조의 3단계를 통해서 현실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 건강이 안 좋다 /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 인간관계가 안 좋다 / 승진이 안 된다 / 나이가 많은데 결혼도 못 하고 있다 등등의 상황들이 내게 주어져서 괴로울 때에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사실과 대상들 중에서 마음을 붙일 현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이 괴로워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지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결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현실을 교체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실과 상황과 대상 중에서 하나님 나라, 내 하늘 아버지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마음을 붙임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상황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징조로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이유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길에 묻혔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베냐민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데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까지 사울의 마음이 붙어있었던 대상들의 현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나귀를 찾아다니던 것이었는데 그 나귀는 사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돈, 건강, 승진 등등의 문제를 마음에 끌어안고 끙끙대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현실로 맞이할 때에 그것들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다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과 천국이 나의 현실임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지금 있고 하나님도 지금 계시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따라 지금의 현실감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 잃어버린 암나귀가 돌아오듯이 이전의 현실이었던 영역들은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둘째 징조로서 3~4절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을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존의 현실에 대해서 죽는데 기존의 현실감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들이 염소 새끼 세 마리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다’는 것은 벧엘에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이었음을 뜻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 같은 번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드렸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제사에서는 제물과 제사자를 동일시하는데 ‘번제’는 죄로 찌든 나의 존재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소제’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 시간들을 쪼개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했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소제를 통해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뵈오려고 벧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현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함과 결핍과 아쉬움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여 결핍함이 생겨도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서 아쉬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셋째 징조로서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으로 기브아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에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영문’은 블레셋의 수색대로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파견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기관이었고 사울의 집이 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사울 생각 속에는 항상 기브아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다는 생각과 판단과 염려와 행동과 말이 늘 고려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부대가 우리 마을에 있다면 그들의 눈을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현실이 교체되면서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든지 말든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리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늘에서 주어진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데 현실이 교체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기존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돈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등)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교체되면서 하늘로부터 판단과 생각이 주어지고 행동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현실이 하나님으로 교체되면서 왕으로 준비가 됩니다.
기존의 현실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

니다. 그렇게 준비 되어 왕의 자리로 올라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더 이상 붙들고 씨름하며 극복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드림으로 현실을 교체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